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9월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283번(순교자 찬가)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5,18-27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새 가족 찾기 선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본당 30주년의 내적 준비로 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시다.(성경 읽기표 참고)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86번(순교자의 믿음)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2장 빛의 신비인 성체성사

1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은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에서, 성서의 보고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 '말씀의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례의 성서 독서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선포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또한 공의회 교부들은 집전자가 하느님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하여 그 의미를 해설해 주는 강론을 전례의 한 부분으로 여기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공의회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성체성사의 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이 분야에서 이룬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복음 선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경건하게 귀 기울여 들으며 조용히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서 구절을 모국어로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도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루가 24,35 참조).

14.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탁에서 "빵을 떼어 주시는" 단순한 행위로도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정신이 빛을 받고 마음이 불타오를 때, 표징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체성사는 풍부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담은 표징들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펼쳐지고, 이러한 표징들을 통하여 그 신비는 어떤 식으로든 믿는 이의 눈앞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강조했듯이, 이 성사의 어떠한 차원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체성사를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 내리려는 유혹을 받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그 신비의 차원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너무도 큰 은총이어서 모호성이나 평가 절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15. 성체성사의 가장 분명한 차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찬례가 식사라는 데에 있습니다. 성찬례는 과월절 음식이 차려진 성목요일 저녁에 생겨났습니다. 식사라는 것이 바로 그 본질적인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 '받아먹어라.' …… 또 잔을 들어 ……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고 말씀하셨다"(마태 26,26.27). 이처럼, 성찬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쌓아가야 하는 친교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찬의 식사는 근본적으로 또 일차적으로 희생 제사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해골산에서 모든 이를 위하여 단 한번 바치신 그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다시 재현**하십니다.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현존하시지만 당신 수난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미사 전례에서 성체 축성에 이어지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는 환호를 통하여 기억하듯이, ***모든 미사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기념'*** 입니다. ***성찬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재현하는 동시에 세상 끝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미래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측면으로 성체성사는, 우리를 이 성사로 이끌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여정을 희망으로 채워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성서묵상〉

무지의 죄

(요한 15,26-16,4)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열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예수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증거의 임무를 수행할 모든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선고를 내릴 때 당국자들은 자기네 심판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죄하시고 그분에게 내린 심판이 거짓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이 자기 차례가 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을 때 그들 역시 정의에 대한 세상의 왜곡된 개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면 빠라끌리또가 그들에게 임하시어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세상은 예수를 단죄할 때 오류를 범했었고 예수의 충실한 제자들을 단죄할 때 역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선고를 받거나 사형선고를 받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보다 앞서 겪으신 일을 자기들도 겪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예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면?

예수께서 정말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유혹들이 고개를 들 때 예수께서는 빠라끌리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께 대한 진리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증거 해 주시고(“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제자들 안에서 증거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증거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내세운 깃발에는 예수님을 처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정의를 위하여’ 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 눈이 먼 자들이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 못지않게 하느님의 율법을 사랑한 사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까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 넣었다.”(사도 8,3)

<나눔>

가정 또는 이웃으로부터 오해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토머스 머튼의 기도

내 주,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제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끝이 날지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도 알지 못하고,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르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러한 소망이 표현되기를 바라고,
그런 소망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비록 제가 아둔하여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옳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주 하느님께 신뢰심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하오면, 주여,
저는 행복하겠나이다.

-토마스 머튼-